

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신 효 정

아주대학교

최 현 주[†]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ng Panel Survey, KCYPS)의 초1, 초4, 중1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초, 중,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또래애착, 교사-학생관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3→초5, 초5→중1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는 건강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있었다. 중1→중3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은 건강과 교사-학생관계였고, 중3→고2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은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 자아존중감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실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변화,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 또래애착, 매개효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현주,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Tel : 02-3290-1589, E-mail : freude80@gmail.com

서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심리적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아동청소년기에 ‘나는 가치로운 존재’이며,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과 같이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건강한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 자아존중감의 정의를 살펴보면, Harter(1990)는 자아존중감을 한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Rosenberg(1989)는 자아존중감을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에 자신의 성공을 인식하는 것과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개인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일컫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Neff, 2011). 자아존중감의 건강한 형성이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인들을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심리적 변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은 긍정 정서(Brown & Marshall, 2001), 주관적 안녕감(DeNeve & Cooper, 1998), 낮은 우울감(Orth, Robins, Trzesniewski, Maes, & Schmitt, 2009; Sowislo & Orth, 2013; Steiger, Allemand, Robins, & Fend, 2014), 낮은 외로움(Jones, Freemon, & Goswick, 1981), 낮은 불안(Sedikides, Rudich, Gregg, Kumanshiro, & Rusbult, 2004; Sowislo &

Orth, 2013) 등 심리적 건강과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과제 지속성(DiPaula & Campbell, 2002), 학업성취(최인재, 오수현, 2010), 진로 성숙(이경희, 윤미현, 2011; Crook, Healy, & O'Shea, 1984)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의 학령기 주요과제인 학업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검증해 왔다.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삶의 만족도, 외로움, 불안, 분노, 짜증, 우울과 관련 있으며(Rosenberg, 1985), 높은 자아존중감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O'Malley & Bachman, 1979), 내적 통제소재, 더 나아가 높은 가계 수입과도 관련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Griffore, Kallen, Popovich, & Powell, 1990).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종단적으로도 성인기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수행되면서 더욱 중요성이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기 낮은 자아존중감은 성인기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 문제, 반사회적 행동, 교육, 직업,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Steiger, Allemand, Robins, & Fend, 2014; Trzesniewski, Donnellan, Moffitt, Robins, Poulton, & Caspi, 2006). 또한 유년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성인 초기 자살 사고와 관련 있고(McGee, Williams, & Nada-Raja, 2001), 자아존중감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우울, 직업만족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종단적으로도 자아존중감의 발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Orth, Robins, & Widaman, 2012).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중요하며 성인기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안정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흥미로운 것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자아존중

감의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들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의 검사-재검사 상관인 .40-.50 사이의 낮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아동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Nottelman, 1987). 자아존중감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국외 중단연구로 Marshall, Parker, Ciarrochi와 Heaven(2014)는 8학년에서 12학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학년별 평균이 중학교 2학년에서 감소하고, 중학교 3학년에서는 머물러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소 증가하고, 고등학교 2학년에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제시하며 자아존중감이 중고등학교에서 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Leahy(1985)는 자아개념의 중단적 발달을 초등학교 5학년, 중학생, 고학생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5학년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였고 초등학교 5학년과 대학교 2학년이 중고생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이는 변화를 밝혀냈다. 이렇게 국외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초기에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불안정하다가 청소년 후기에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Leahy, 1985; Nottelman, 1987; O'Malley & Bachman, 1983). 한편 국내 중단연구는 최근 정익중(2007)과 정병삼(2010)이 청소년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중단연구들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시기에 걸쳐 3년간의 자료만 분석한 결과로 초등학교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고등학생의 발달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지속

적인 증가만을 보였다. 따라서 국내 중단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청소년기 동안에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자아존중감을 유지시키기 위해 중단적으로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 타인과 사회적 비교 및 평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 양육태도라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애정적 양육 태도는 자녀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공하고, 제공된 한계 안에서 자녀에게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하며, 자녀가 필요할 때 유능하고 조직적인 도움을 주게 되므로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송인섭, 1989; Coopersmith, 1981).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애정적 양육 관계는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 되며,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수용하며,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자녀를 존중해 주는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며(Mote, 1967; Sharaf, Thompson & Walsh, 2009), 부모의 거부, 통제, 무관심 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Openshaw, 1983). 한편, 반대의 경우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가 자유롭고, 긍정적, 애정적이며, 자녀에게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며(장휘숙, 2002; 서영숙, 박옥임, 2002; Coopersmith, 1981),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본다(Medinnus, 1965: 강재희,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건강한 형성이 서로 상호 영향력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중고등학생이 되는 청소년기는 학교생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또래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된다.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래들과 더 많이 나누고,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부모보다 친구에게 더 많이 느끼게 된다. 또래는 청소년기의 관심사와 자신들이 당면한 발달적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서 또래 집단 안에 있을 때,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평등한 위치에 있는 또래를 준거집단으로서 활용하여 사회화를 학습하며 또래관계를 유지해간다(Buhrmester & Furman, 1990). 또래애착은 또래 간에 서로 믿고 이해하며 교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데(이수하, 2005), 또래애착이 형성되면 아동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격려와 지지를 통해 서로를 모델링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Picou & Carter, 1976). 이 시기에 친구관계가 긍정적이며, 친밀하고, 친구관계에서 유능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감을 가지고 자기 평가를 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김지영, 이형실, 2010; Vandell & Hembree, 1994). 또한 친구관계가 긍정적일 때 사회적 수용 및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오원정, 1999; 이은혜, 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최규련, 1998; 최정미, 김미란, 2004; Berndt, 1996). 이렇게 또래와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유대감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난다(이은혜, 고윤주, 1999; 오원정, 1999; 정미선, 2010; Armsden & Greenberg, 1987). 동시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친구들과 서로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박소영, 2008), 긍정적인 청소년의 자아형성은 책임 있는 대인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김성남, 2003; 박지연, 2008; 황경옥, 2001). 즉, 학교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지지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건강한 형성이 서로 원인 결과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볼 수 있다(김문혜, 1999; 이은혜, 고윤주 2004; 강상진, 전민정, 2006; Scott & Murray, 1996).

더불어 아동청소년기는 교사와 생활하고 교류가 증가하는 시기로 학교에서 교사의 요인이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학생-교사의 관계는 이해와 공감,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을 포함한다. 즉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학생과 긍정적이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고,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믿고, 존중하며 수용적 태도를 갖는 것을 나타낸다(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 2003). 긍정적인 학생-교사의 관계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이며, 친사회적 감정을 갖고, 유능감이 높으며 문제행동을 발생하는 것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이기복, 2000). 선행연구들은 교사가 인간 중심적이고 학생과 공감대 형성을 잘 하며, 학생과 진실된 관계가 될수록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김준영, 2004; 임효정, 2002), 교사 학생의 관계가 협력적이고 긍정적일수록 학생의 전반적인 생활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방다미, 2005). 또한 반대의 경우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많이 형성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Kostelnik et al., 2005)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 잘 적응하고 친화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Graziano, Jensen, & Finch, 1977).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김경화, 2011).

흥미로운 것은 아동 청소년기의 발달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인들을 탐색한 연구에서 초등학생 자아존중감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보다 가족의 지지의 영향력이 크다고 나타난다는 것이다(김애경, 2003). 또한 부모 및 교사에착과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본 김경화(2011)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부모애착이 교사에착보다 자아존중감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종단적인 변화에 따른 연구들 중 정익중(200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애착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의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기에 들어감에 따라 부모의 지지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즉, 어린 아동일수록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양육이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 요인으로 건강이 관련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의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초등학교 5-6학년, 늦으면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서서히 또는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를 느끼며 신체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생리적 변화도 일어난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는 2차 성장의 나타나는 시기로 신체·심리·사회적 변화와 함께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겪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는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비만 등의 신체적인 건강은 청소년이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았다(McClure, Tanski, Kingsbury, Gerrard, & Sargent, 2010; Koinis Mitchell, Adams, & Murdock, 2005). 또한 청소년들이 의사를 방문하고 병원에 입원한 경력 등의 신체증상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도 신체증상을 많이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이미숙, 최영, 유지숙, 2000). 장애와 같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일반학생과 다른 외모나 신체적 능력 혹은 신체상을 가지며,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자신의 수행에서 자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경희, 2005; 전현선, 2002). 즉, 청소년기에 자신의 몸에 대한 호감이나 건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근원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반대의 경우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증진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eong & Park, 2007),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신체적인 장애에 대한 수용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노승현, 2007). 이렇게 볼 때, 건강과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두 변인이 원인 결과적으로 영향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건강,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함께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연구방법으로 한 연령과 다른 연령을 비교함으로써 발달적 변화를 추론하고 있거나, 종단적인 연구일지라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기의 중요한 변인인 부모, 학교환경에서 교사관계나 또래관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발달에 변이가 일어나기 쉬운 아동청소년기 학생들 즉, 초등학교,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발달을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들을 발견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하게 자아존중감이 발달하도록 돕기 위한 상담적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교사-학생 관계,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교사-학생 관계,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변수 및 자료의 처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ng Panel Survey, KCYPS) 자료를 이용하여 초, 중,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또래애착, 교사-학생관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KCYPS는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표본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7년간의 개인 영역 및 환경 영역의 성장 및 발달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단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이 포함된 차수의 자료가 포함된 초1 패널 3-5차, 초4 패널 2-4차, 중1 패널 1-5차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의 수는 초1 패널이 2,342명, 초4 패널이 2,378명, 중1 패널이 2,351명이었다. 주요 변인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KCYPS의 사회정서발달 영역에 속하는 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묻는 5개 문항과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값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역산 처리하였다. 초1 패널에서는 3차와 5차, 초4 패널에서는 2차와 4차, 중1 패널에서는 1, 3, 5차에 자아존중감이 조사되었는데, 초1 패

표 1. 연구변인의 구성

구 분	변인명	문항수	신뢰도
종속 변인	자아존중감	10 [†]	초1 패널 3차 .732 / 5차 .807
			초4 패널 2차 .782 / 4차 .838
			중1 패널 1차 .839 / 3차 .815, 5차 .859
독립 변인	건강	1	—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4	초1 패널 .893
			초4 패널 .826 ~ .830
			중1 패널 .819 ~ .806
	또래애착	9	초1 패널 .683 ~ .691
			초4 패널 .784 ~ .764
중1 패널 .770 ~ .745			
교사-학생관계	5	초1 패널 .845 ~ .871	
		초4 패널 .863 ~ .891	
		중1 패널 .813 ~ .846	

† 초1 패널의 3차 자아존중감은 5개 문항임.

널의 3차는 5개 문항만이 사용되었다. 내적일관성신뢰도 계수는 모두 .7 이상으로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또래애착, 교사-학생관계이다. 건강 변인의 경우, 초1 패널에서는 보호자에게, 초4와 중1 패널에서는 스스로에게 “매우 건강하다(1)”에서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4)”까지 학생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도록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가지는 내적인 신념이나 가치를 의미하는데(김혜영, 2000),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수용적, 애정적 자율적 민주적인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를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로 명명하며, KCYPS의 가정환경 영역

중 양육방식 I의 애정 항목에 해당하는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등이 있고 내적일관성신뢰도 계수는 모두 .8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래애착은 또래 간에 서로 믿고 이해하며 교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되는 데(이수하, 2005), 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에 해당하는 9개(초1 패널은 6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또래애착은 의사소통(문항 예,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신뢰(“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소외(“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문항들은 값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좋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역산 처리되었다. 또래애착의 내적일관성신뢰도 계수는 모두 .68 이상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학생관계는 교사가 학생을 이해와 공감으로 대하고,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지은림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생관계 변인으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교사-학생관계 항목이 사용되었다. 이 변인의 내적일관성신뢰도 계수는 모두 .8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관여하는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전 시점(T-1)의 자아존중감이 한 시점(T)의 독립변수를 통해 그 다음 시점(T+1)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자아존중감 변화에 개입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측해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동일한 시점의 독립변인은 자아존중감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종단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형 설정을 통해 독립변인의 변화가 통제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변인의 시간적 선행성을 보장하여 보다 엄격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또래애착과 부모애정은 패널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시점에 측정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전 시점(T-1)의 자아존중감이 같은 시점(T-1)의 독립변수를 통해 그 다음 시점(T+1)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전 시점(T-1)의 자아존중감이 다음 시점(T+1)의 독립변수를 통해 그 다음 시점(T+1)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독립변인은 1개 문항으로 측정된 건강 변인은 측정변인으로, 나머지 변인들은 잠재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오차가 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1,000번 반복 추출 한 샘플에 대해 95% 신뢰구간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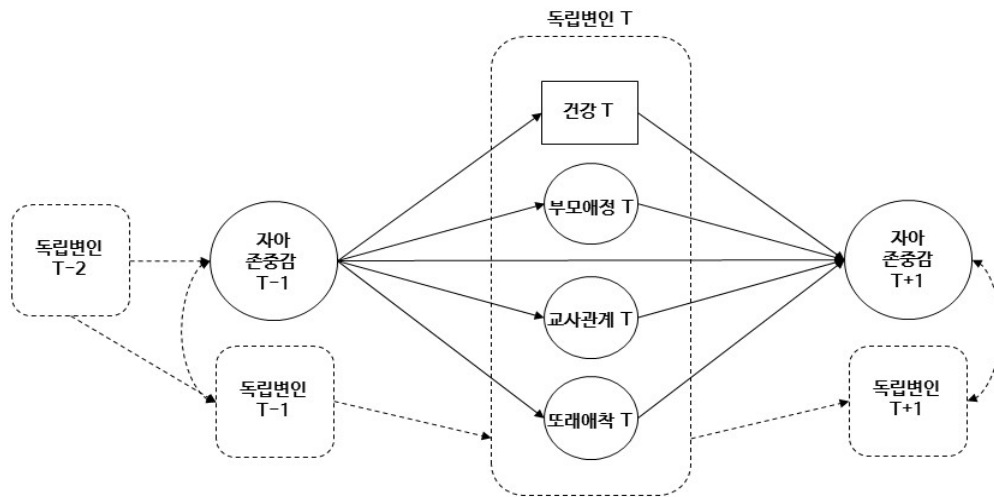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E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매개변인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개별 매개변인들의 효과를 각각 알아보기 위해 팬텀(Phantom)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묻는 긍정문항과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각기 다른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김정은, 2006; 이미리, 2005; 정병삼, 2010; 홍세희, 노연경, 정송, 2011). 긍정적 자기평가와 부정적 자기평가는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맥락이 달라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민수홍, 유성렬, 2003; 백혜정, 황혜정, 2005). 이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각기 다른 요인으로 보고 긍정, 부정 문항이 자아존중감 상위 요인에 속하는 위계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부합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TLI, CFI, RMSEA의 세 종류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TLI와 CFI는 .90이상, RMSEA는 .08이하일 때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기술통계는 SPSS 17.0,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은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통계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1 패널의 경우,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인 자아존중감 T3의 평균은 3.30이었으나,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시점인 자아존중감 T5의 평균은 3.16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실제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12.695, p<.001$). 한편, 초4 패널에서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시점인 자아존중감 T2의 평균은 3.02였으나,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인 자아존중감 T4의 평균은 3.06으로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 이러한 평균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3.458, p<.01$). 중1 패널에서 역시 학생들이 중1이 되는 시점인 자아존중감 T1의 평균은 2.79, 중3이 되는 시점인 자아존중감 T3의 평균은 2.82, 고2가 되는 시점인 자아존중감 T5의 평균은 2.90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평균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_{중1-중3}=-2.420, p<.05; t_{중3-고2}=-9.345, p<.001$). 또한,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 초1 패널보다는 초4 패널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초4패널 보다는 중1 패널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각 패널 집단의 첫 번째 시점인 초1 패널의 T3, 초4 패널의 T2, 중1 패널의 T1 시점에 조사된 자아존중감의 잠재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초1 패널 집단의 자아존중감을 0으로 보았을 때, 초4 패널의 자아존중감은 $-0.191(p<.001)$, 중1 패널의 자아존중감은 $-0.481(p<.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1 패널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초4 패

표 2. 패널 별 주요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

초1 패널 (N=2,342)								
	M	S.D.	1	2	3	4	5	
1. 자아존중감 T3	3.30	0.52	1					
2. 자아존중감 T5	3.16	0.42	.405***	1				
3. 건강	3.29	0.33	.168***	.203***	1			
4. 부모애정	3.35	0.57	.373***	.351***	.166***	1		
5. 교사-학생관계	3.35	0.37	.368***	.312***	.173***	.407***	1	
6. 또래애착	3.13	0.40	.496***	.465***	.192***	.363***	.441***	1
초4 패널 (N=2,378)								
	M	S.D.	1	2	3	4	5	
1. 자아존중감 T2	3.02	0.45	1					
2. 자아존중감 T4	3.06	0.43	.358***	1				
3. 건강	3.31	0.38	.274***	.318***	1			
4. 부모애정	3.23	0.47	.320***	.379***	.256***	1		
5. 교사-학생관계	2.99	0.42	.337***	.292***	.250***	.443***	1	
6. 또래애착	3.06	0.38	.505***	.432***	.288***	.431***	.371***	1
중1 패널 (N=2,351)								
	M	S.D.	1	2	3	4	5	6
1. 자아존중감 T1	2.79	0.51	1					
2. 자아존중감 T3	2.82	0.45	.505***	1				
3. 자아존중감 T5	2.90	0.43	.408***	.523***	1			
4. 건강	3.19	0.43	.263***	.294***	.298***	1		
5. 부모애정	2.99	0.49	.344***	.302***	.293***	.206***	1	
6. 교사-학생관계	2.81	0.45	.250***	.262***	.282***	.172***	.342***	1
7. 또래애착	3.05	0.34	.401***	.429***	.434***	.324***	.364***	.346***

*** $p < .001$

주.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형에 포함된 모든 시점의 평균값을 사용함.

널이 그 다음이며, 중1 패널 집단의 자아존중 연구모형 분석
감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건강, 부모의 애정

표 3. 초1 패널 연구모형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경로	β	p	경로	β	p
건강 T2 → 자아존중감 T3	.072**	.001			
교사관계 T2 → 자아존중감 T3	.240***	.000			
			자아존중감 T3 → 자아존중감 T5	.409***	.000
자아존중감 T3 → 건강 T4	.225***	.000	건강 T4 → 자아존중감 T5	.092**	.001
자아존중감 T3 → 부모애정 T4	.499***	.000	부모애정 T4 → 자아존중감 T5	.180***	.000
자아존중감 T3 → 교사관계 T4	.175***	.000	교사관계 T4 → 자아존중감 T5	.102	.060
자아존중감 T3 → 또래애착 T3	.469***	.000	또래애착 T3 → 자아존중감 T5	-.015	.538
건강 T3 ↔ 자아존중감 T3	.023	.308	건강 T5 ↔ 자아존중감 T5	.292***	.000
교사관계 T3 ↔ 자아존중감 T3	.391***	.000	교사관계 T5 ↔ 자아존중감 T5	.379***	.000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p
			Lower	Upper	
자아존중감 T3 → 건강 T4 → 자아존중감 T5	.019**	.005	.010	.030	.001
자아존중감 T3 → 부모애정 T4 → 자아존중감 T5	.081**	.015	.054	.112	.002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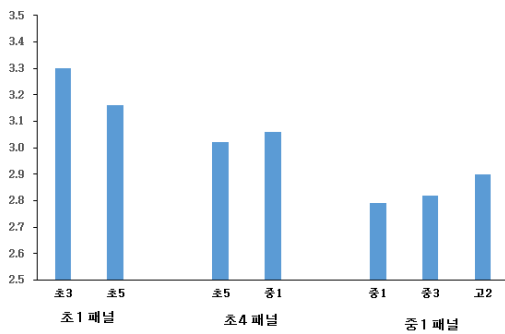


그림 2. 패널별 자아존중감 평균 변화

적 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모든 패널에서 TLI와 CFI는 .90 이상, RMSEA는 .05 이하로 수용 가능한 적합

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초1 패널 TLI=.910, CFI=.918, RMSEA=.046; 초4 패널 TLI=.914, CFI=.920, RMSEA=.043; 중1 패널 TLI=.906, CFI=.911, RMSEA=.039). 우선 초1 패널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4의 건강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T5의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beta_{\text{건강}}=.092, p < .01$; $\beta_{\text{부모애정}}=.180, p < .001$) 예측하며 이전 시점인 T3의 자아존중감이 T5의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에 대해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_{\text{건강}}=.019, p < .01$; $B_{\text{부모애정}}=.081, p < .01$). 즉, 초등학교 4학년 때 건강이 좋았고, 부모로부터 애정을 많이 받았던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

표 4. 초4 패널 연구모형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경로	β	p	경로	β	p
건강 T1 → 자아존중감 T2	.015**	.001			
부모애정 T1 → 자아존중감 T2	.277***	.000			
교사관계 T1 → 자아존중감 T2	.117***	.000			
			자아존중감 T2 → 자아존중감 T4	.366***	.000
자아존중감 T2 → 건강 T3	.111***	.000	건강 T3 → 자아존중감 T4	.136**	.001
자아존중감 T2 → 부모애정 T4	.220***	.000	부모애정 T4 → 자아존중감 T4	.320***	.000
자아존중감 T2 → 교사관계 T3	.154***	.000	교사관계 T3 → 자아존중감 T4	.038	.084
자아존중감 T2 → 또래애착 T2	.428***	.000	또래애착 T2 → 자아존중감 T4	-.036	.212
건강 T2 ↔ 자아존중감 T2	.291***	.000	건강 T4 ↔ 자아존중감 T4	.249***	.000
교사관계 T2 ↔ 자아존중감 T2	.292***	.000	교사관계 T4 ↔ 자아존중감 T4	.237***	.000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p
			Lower	Upper	
자아존중감 T2 → 건강 T3 → 자아존중감 T4	.018**	.005	.010	.030	.001
자아존중감 T2 → 부모애정 T3 → 자아존중감 T4	.067**	.010	.049	.086	.003

** $p < .01$, *** $p < .001$

학생관계의 경우, T3의 자아존중감이 T4의 교사-학생관계를 정적으로 예측하지만($\beta = .175$, $p < .001$), T4의 교사-학생관계가 T5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02$, $p > .05$). 따라서 이에 추가적인 매개효과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또래애착 역시 T3의 자아존중감이 T3의 또래애착을 정적으로 예측하지만($\beta = .469$, $p < .001$), T3의 또래애착이 T5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15$, $p > .05$). 따라서 이에 추가적인 매개효과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초4 패널에서는 T3의 건강이 T4의 자기존중감($\beta = .136$, $p < .001$)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18$, $p < .01$).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T4의 부모애정이 높을수록 T4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beta = .320$, $p < .001$), 매개효과 역시 유의했다($B = .067$, $p < .01$). 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건강이 좋았고,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로부터 애정을 많이 받은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T1의 교사-학생관계는 T2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beta = .117$, $p < .001$), T2의 자아존중감도 T3의 교사-학생관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beta = .154$, $p < .001$), T3의 교사-학생

표 5. 중1 패널 연구모형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경로	β	p	경로	β	p
자아존중감 T1 → 건강 T2	.106***	.000	자아존중감 T1 → 자아존중감 T3	.730***	.000
자아존중감 T1 → 부모애정 T1	.527***	.000	건강 T2 → 자아존중감 T3	.058**	.007
자아존중감 T1 → 교사관계 T2	.122***	.000	부모애정 T1 → 자아존중감 T3	-.043	.133
자아존중감 T1 → 또래애착 T1	.525***	.000	교사관계 T2 → 자아존중감 T3	.046*	.032
			또래애착 T1 → 자아존중감 T3	-.030	.355
			자아존중감 T1 → 자아존중감 T5	-.008	.841
자아존중감 T3 → 건강 T4	.107***	.000	자아존중감 T3 → 자아존중감 T5	.637***	.000
자아존중감 T3 → 부모애정 T4	.184***	.000	건강 T4 → 자아존중감 T5	.094***	.000
자아존중감 T3 → 교사관계 T4	.097***	.000	부모애정 T4 → 자아존중감 T5	.109***	.000
자아존중감 T3 → 또래애착 T3	.539***	.000	교사관계 T4 → 자아존중감 T5	.099***	.000
건강 T1 ↔ 자아존중감 T1	.304***	.000	또래애착 T3 → 자아존중감 T5	-.041	.119
교사관계 T1 ↔ 자아존중감 T1	.329***	.000			
건강 T3 ↔ 자아존중감 T3	.296***	.000	건강 T5 ↔ 자아존중감 T5	.215***	.000
교사관계 T3 ↔ 자아존중감 T3	.173***	.000	교사관계 T5 ↔ 자아존중감 T5	.311***	.000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p
			Lower	Upper	
자아존중감 T1 → 건강 T2 → 자아존중감 T3	.005**	.002	.001	.009	.006
자아존중감 T1 → 교사관계 T2 → 자아존중감 T3	.005	.002	.000	.009	.053
자아존중감 T3 → 건강 T4 → 자아존중감 T5	.010**	.003	.005	.017	.001
자아존중감 T3 → 부모애정 T4 → 자아존중감 T5	.020**	.005	.011	.030	.001
자아존중감 T3 → 교사관계 T4 → 자아존중감 T5	.010**	.003	.005	.017	.001

* $p < .05$, ** $p < .01$, *** $p < .001$

관계는 T4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38, p > .05$). T2의 또래애착 역시 T2의 자아존중감으로부터

정적인 영향을 받지만($\beta = .428, p < .001$), T4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36, p > .05$).

다음으로 중1 패널에서 중1의 자아존중감이 중3의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T2의 건강과 교사-학생관계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text{건강}}=.058, p<.01$; $\beta_{\text{교사관계}}=.046, p<.05$). 그러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건강만이 자아존중감 T1 → 자아존중감 T3의 경로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_{\text{건강}}=.005, p<.01$; $B_{\text{교사관계}}=.005, p>.05$). 즉, 중학교 2학년 때 건강이 좋았던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는 반면, 중학교 2학년 때 교사와의 관계가 좋았던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기는 하나 교사관계가 좋지 않았던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T1의 부모애정과 T1의 또래애착은 T3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beta_{\text{부모애정}}=-.043, p>.05$; $\beta_{\text{또래애착}}=-.030, p>.05$).

마지막으로 중3의 자아존중감이 고2의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T4의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가 좋거나 높을수록 T5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text{건강}}=.094, p<.001$; $\beta_{\text{부모애정}}=.109, p<.001$; $\beta_{\text{교사관계}}=.099, p<.001$). 이들 3개 변수의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B_{\text{건강}}=.010, p<.01$; $B_{\text{부모애정}}=.020, p<.01$; $B_{\text{교사관계}}=.010, p<.01$), 이는 고2 때 건강이 좋고, 부모로부터 애정적 양육을 받았으며, 교사와 관계가 좋았던 학생은 고2 때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T3의 또래애착은 T3의 자아존중감으로부터 정적인 영향을 받으나($\beta=.539, p>.001$), T5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1, p>.05$).

논 의

본 연구는 초중고생의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건강,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교사-학생관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ng Panel Survey, KCYPS)의 초1, 초4, 중1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초1 패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초4 패널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생에서 중학교 1학년생으로, 그리고 중1 패널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에서 중학교 3학년생을 거쳐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과 매개효과를 각각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자아존중감 평균을 비교한 결과 초1 패널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때 보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낮아졌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초4 패널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때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 평균도 유의하게 높아졌다. 중1 패널 역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자아존중감의 평균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초1, 초4, 중1 패널들이 각각 다른 대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초, 중, 고등학교 시기 자아존중감 변화를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의 변화를 조사한 초1 패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볼만한 결과이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자아존중감 변화의 시기라는 Leahy(1985)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최정미, 김미란, 2004). 그러나 이 선행연구는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만을 다루고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두 포함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 초1 패널보다는 초4 패널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고, 초4 패널 보다는 중1 패널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1 패널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초4 패널이 그 다음이며, 중1 패널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패널의 집단이 달랐던 시점별 변화임을 고려해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과 출생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을 연구한 Twenge와 Campbell(2001)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부모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이혼율, 실업률 등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연령 혹은 출생년도 별 자아존중감 차이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이혼율과 실업률이 급상승했던 것으로 조사되는데 (통계청, 2009) 이는 가족스트레스를 높이고 나아가 자녀 양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주홍, 2002).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초1, 초4, 중1 패널의 자아존중감 평균 차이는 사회 경제적인 맥락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매개한 변인으로 건강,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교사-학생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은 초1, 초4, 그리고 중1의 모든 패널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 중, 고등학생 모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인식을 촉진시키고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발달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자기 인식이 자신의 신체적인 활동의 제한, 또래와의 관계의 위축,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부담감 등의 이유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김표민, 김윤희, 2013; Koinis Mitchell, Adams, & Murdock, 2005). 따라서 건강이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패널에서 자아존중감 발달을 매개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초3→초5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건강,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초등학교시기에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서 부모 지지가 중요한 촉진요인임을 밝히는 것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 성취적, 애정적, 합리적, 온정적, 개방적으로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다(김금자, 2009; 우미경, 2009; 임선아, 2013)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 더불어 초5→중1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 또한 초3→초5의 결과와 동일하게 건강과 부모양육태도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도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부모 관계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되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한다고 한

선행연구들을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홍성훈, 도현심, 2002).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게 되는 시기는 개인 내적으로나 개인 외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로 신체, 심리, 관계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함으로써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엄선영, 이강이, 2012).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데, 이 시기의 부모의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충분한 관심과 애정으로 표현되어 자녀에게 수용감과 만족감을 심어주게 되고,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생 시기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할이 자아존중감 발달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1→중3과 중3→고2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은 건강, 부모 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까지는 자아존중감 발달을 건강과 부모양육태도가 매개한 반면, 중고등학교 시기에서는 자아존중감 발달에서 교사-학생관계가 추가적인 매개변인으로 밝혀졌다. 먼저 중1→중3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던 변인은 교사-학생관계였는데, 이는 교사의 지지와 지원이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Scott & Murray, 1996)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중3→고2의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건강, 부모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에 잘 적응하고 친화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

고,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애착, 교사애착의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한다고 밝혔다(김경화, 2011; Graziano, Jensen & Finch, 1977; Howes, Phillip & Whitebook, 1992).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호와 귀한 돌봄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내면화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 역할을 교사가 하기 때문에 교사-학생관계의 영향력을 의미 있게 설명해 볼 수 있다(Wentzel, 1997). 실제로 교사는 학생에게 교육적 모델링이 될 수 있으며, 애착의 대상자로서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이규미, 2005; Rice, 1990).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가 공감적이고 학생에 대해 평가나 비판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는 등의 관심이 학생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자기관심과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Aspy & Roebuck, 1977). 한편 다양한 연구들에서 청소년기에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의 원인결과적으로 의미있는 변인임을 밝혀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1→중3과 중3→고2 시기에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강상진, 전민정, 2006; 최규련, 1998; 최정미, 김미란, 2004; Berndt, 1996). 선행 연구들은 초기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중학생이 되면서 청소년의 인지, 정서, 행동발달에서 부모보다는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보다 중요해진다고 하였지만(Santrock, 1996), 이는 본 종단적인 연

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횡단적인 연구들로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라는 점에서 같은 시점의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의미가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종단적인 설계에서는 이전 시점에서 또래관계의 긍정적이 형성이 이후 자아존중감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초등학교 시기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가 강력한 매개변인 이었으며, 중학생 시기 동안에는 부모양육태도와 더불어 교사-학생관계가 그리고 중학생 시기에서 고등학생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부모양육태도와 더불어 교사-학생관계가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에 이르는 전체 아동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체적 건강에 대한 지각이 자아존중감 발달에서 주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상담에서의 실제적 함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발달해 가는데,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모든 기간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기에서 부모 양육 태도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친구나 교사 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부모들에게 교육하고 아동청소년기 자녀들과 신뢰로운 양육관계를 맺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

로 자녀에게 온정적인 관심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부모교육이나 자녀 이해 교육 및 소통에 대한 정보와 부모교육 상담프로그램은 보통 아동기나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자료들이 대부분이지만,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의 역할과 더불어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중학생 시기에는 부모와 더불어 교사-학생관계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부모만큼이나 교사-학생관계가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의 친밀감이 높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학생이 자기수용성이 높은 것(김현심, 2002), 교사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다(설경숙, 2009)는 이런 연구들은 교사와 학생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하여 학생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시기에 학교생활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권위적이고 지시적 일방적으로 발전되기 보다 교사와 학생의 이해를 위한 상호교류와 소통의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신체적 건강에 대한 지각은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므로 아동청소년기에 기본적인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가정과 사회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도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학생의 질병관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상

적인 건강한 신체로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건강한 자기상과 자신감을 갖도록 점검하는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이미 건강상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보다 건강한 자아존중감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사용하여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개입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패널 데이터였으므로 연구자가 선택한 매개변인들의 측정시점을 일관되게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또래애착 변인들은 자아존중감 측정시점 이후에 측정된 또래애착 변인들을 선정할 수 없어, 독립변인으로 선택한 자아존중감과 동일시점에 측정된 또래애착 변인들을 선정해야 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시기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종단적인 영향력을 반복 연구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매개하는 변인들로 건강, 부모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 또래애착의 제한적인 변인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로 자아존중감 발달에서 남녀의 차이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진로 등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들도 추가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상진, 전민정 (2006).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차이: 자아존중감이 가계소득 및 성적 수준과 갖는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4(4),

195-221.

강재희 (200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화 (2011).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교사 애착 간의 종단적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금자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혜 (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애경 (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김정은 (2006).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33-61.

김준영 (2005). 교사의 희망과 공감의 자아존중감, 직무만족도 및 훈육유형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 이형실 (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2(1), 21-32.

김표민, 김윤화 (2013). 건강상 어려움 인식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143-167.

김현심 (2002). 교사-학생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목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승현 (2007). 노령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년기와 비교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1(1), 30-60
- 민수홍, 유성렬 (200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 *형사정책*, 15(2), 159-188.
- 박소영 (2008). 청소년 교우관계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관계구조.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 (2008).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다미 (2005). 교사 학생간의 인간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 황혜정 (2005).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pp. 115-130). 서울: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설경숙 (2009). 초등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 (1989). 인간의 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엄선영, 이강이 (201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4(3), 89-100.
- 오원정 (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관계망과 아동의 자아기작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미경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희 (2005). 뇌성마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윤미현 (2011).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1), 175-199.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기복 (2000). 아동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공감적 이해수준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청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수하 (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고윤주 (2004).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아동학회지*, 25(4), 1-16.
- 이주홍 (2002).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 1997년 이후 구조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아 (2013). 민주적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모형 비교: 저소득층 아동과 비저소득층 아동. *교육심리연구*, 27(1), 125-142.
- 임효정 (2002). 교사의 인간중심적 태도에 대한 학생의 지각 정도와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선 (2002). 중북 지체부자유아 치료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40-173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 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47, 127-166.
- 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 (2003). 교사-학생 관계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6(2), 25-42.
- 최규련 (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의 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 최인재, 오수현 (201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부모지원,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 7(3), 95-113.
- 최정미, 김미란 (2004). 초중학교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71-380.
-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서울: 통계청.
- 홍성훈,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노연경, 정 송 (2011). 부정문항이 포함된 검사의 요인구조: 자아존중감 검사 의 예. *교육평가연구*, 24(3), 713-732.
- Aiken, L. S., Stein, J. A., & Bentler, P. M. (1994). Structural equation analyses of clinical subpopulation differences and comparative treatment outcomes: Characterizing the daily lives of drug addi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488-499.
- Armsden G. C.,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Youth Adolescent*, 6(5), 427-453
- Aspy, D., & Roebuck, F. (1977). *Kids don't learn from teachers they don't like*. Amherst, M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te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346-3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yth, D. A. & Traeger, C. (1988). Adolescent self-esteem and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In S. Salzinger, J. Antrobus, & M. Hammer (Eds.), *Social networks of childre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Hillsdale, NJ: Erlbaum.
- Brown, J. D., & Marshall, M. A. (2001). Self-esteem and emotion: Some thoughts about feeling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575-584.
- Buhrmester, D., & Furman, W. (1990). Perceptions of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 61, 1387-1398.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67). Crok,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 392-414.
- Crook, R. H., Healy, C. C., & O'Shea, D. W. (1984). The linkage of work achievement to self-esteem,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chiev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1), 70-79.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Di Paula, A., & Campbell, J. D. (2002). Self-esteem and persistence in the face of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711-724.
- Graziano, W. G., Jensen-Campbell, L. A., & Finch, J. F. (1977). The self as a mediator between personal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92.
- Griffore, R. J., Kallen, D. J., Popovich, S., & Powell, V. (1990). Gender differences in correlates of college students' self-esteem. *College Student Journal*, 24, 287-291.
- Harter, S. (1990). Processes underlying adolescent self-concept formation.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pp. 205-239). Newbury Park, CA: Sage.
- Howes, C., Phillip,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 449-460.
- Jeong, K. S. & Park, G. J. (2007).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self-esteem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mastectomy patients.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7(1), 36-46.
- Jones, W. H., Freemon, J. E., & Goswick, R. A. (1981). The persistence of loneliness: Self and other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49, 27-48.
- Koinis Mitchell, D., Adams, S., & Murdock, K.K. (2005). Associations among risk factors, individual resources and indices of school-related asthma morbidity in urban, school-aged children: A pilot study. *Journal of School Health*, 75(10), 1-9.
- Kostelnik, M., Whiren, A., Soderman, A., Stein, L., & Grerory, K. (2005).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ory to practice*. (박경자, 김송이, 권연희 역) 유아를 위한 사회정서 지도. 서울: 교문사.
- Leahy, R. L. (1985). *The Development of the Self*. 자아의 발달(김기정 역). 서울: 문음사.
- Marshall, S. L., Parker, P. D., Ciarrochi, J., & Heaven, P. C. L. (2014). Is self-esteem a cause or consequence of social support? *Child Development*, 85(3), 1275-1291.
- McGee, R., Williams, S., & Nada-Raja, S. (2001). Low self-esteem and hopelessness in childhood and suicidal ideation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281-291.
- McClure, A. C., Tanski, S. E., Kingsbury, J., Gerrard, M., Sargent, J. D. (2010).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low self-esteem

- among US adolescents. *Academic Pediatrics*, 10, 238-244.
- Mote, F. B. (196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self-concept in school and par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in child rearing*.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Neff, K. D. (2011). Self-compassion, self-esteem, and wellbe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Compass*, 5, 1-12.
- Nottelmann, E. D. (1987).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41-450.
- O'Malley, P. M. & Bachman, J. G. (1979). Self-esteem and education: Sex and cohort comparisons among high school sen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53-1159.
- O'Malley, P. M. & Bachman, J. G.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ages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57-268.
- Orth, U., Robins, R. W., Trzesniewski, K. H., Maes, J., & Schmitt, M. (2009). Low self-esteem is a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 472-478.
- Orth, U., Robins, R. W., & Widaman, K. F. (2012). Life-span development of self-esteem and its effects on important life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 1271-1288.
- Openshaw, D, Kim. (1983). Socializa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Symbolic Interaction and Social Learning Explanations. *Adolescence*, 18(70), 317-329.
- Picou, J. S., & Carter, T. M. (1976). Significant-other influence and aspirations. *Sociology of Education*, 49, 12-22.
- Rice, K. G. (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11-538.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pp. 205-246). Orlando, FL: The Academic Press.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Psychological Review*, 60, 141-156.
- Santrock, J. T. (1996). *What is your classroom management profile*. Retrieved from <http://education.indiana.edu/cas/tt/v1i2/what.html>
- Scott, C. G., Murray, G. C., Mertens, C. y Dustin, E. R. (1996): Student self-esteem and school system: Perceptions and implication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9, 5, 286-293.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Personality Process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84, 400-416.
- Sharaf, Y. A., Thompson, E. A., & Walsh, E. (2009). Protective effects of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on suicide risk behaviors

- among at-risk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s Psychiatric Nursing*, 22(3), 160-168.
-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 213-240.
- Steiger, A. E., Allemand, M., Robins, R. W., & Fend, H. A. (2014). Low and decreasing self-esteem in adolescence predict adult depression two decades la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 325-338.
-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Moffitt, T. E., Robins, R. W., Poulton, R., & Caspi, A. (2006). Low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s poor health, criminal behavior, and limited economic prospects dur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2, 381-390.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1). Age and birth cohort differences in self-esteem: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4), 321-344.
- Smith, P. & Beaton, D. (2008). Measuring change in psychological working conditions: Methodological issues to consider when data are collected at baseline and one follow-up time-point.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5, 288-296.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Vandell, D. L., & Hembree,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4), 461-477.
- Wentzel, K. R. (1997). Student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erceived pedagogical car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3), 411-419.

원고접수일 : 2015. 10. 05.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2. 15.
최종게재결정일 : 2016. 02. 24.

**The mediation effect of physical health, parental affection,
student-teacher relation, and peer attachment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self-esteem**

Hyojung Shin

Ajou University

Hyunju Choi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physical health, parental affection, student-teacher relation, and peer attachment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self-esteem. Three age groups (the first grade, the fourth grade, and the seventh grade) of panel data collected by Korea Children & Young Panel Survey(KCYPS)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physical health and parental affection mediate the change of self-esteem from the third grade to the fifth grade as well as change from the fifth grade to the seventh grade. Physical health and teacher relation were found to mediate the change of self-esteem from the seventh grade to the ninth grade.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change from the ninth grade to the eleventh grade was mediated by physical health, parental affection, and student-teacher relation. Practical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self esteem was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s, development of self-esteem, mediation effect